

새생명으로 부활한 가족사랑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은 충북도회 회원사 한종이엔지(주)
김종일 대표이사, 아들의 간이식을 통해 새생명 얻어



△ 아들로부터 간이식을 받은 김종일(左) 사장에게 충북도회 이철기(右) 회장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설비 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철기) 회원사인 한종이엔지(주) 김종일 사장
이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아들의 간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평소 간기능 수치가 높아 치료를 받아오던 김 사장이 혼수상태에 빠져 서울 아산병원으로 실려
간 것은 지난 3월 23일 새벽이다. 병명은 간경화 말기, 간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이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었다.

신병교육 훈련 도중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된 둘째 아들(김윤식/충북대 생명과학부 휴학중)이

퇴소 3일을 앞두고 청원휴가를 얻어 병원으로 달려왔다. 두 살 위인 형은 어렸을 때 수술한 경험
이 있어 동생이 간이식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아버지만 살릴 수만 있다면 제 간을 나눠주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들의 효심이 내심 고마우면서도 아들의 몸에 칼을 대야 한다는 것에 아버지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생사의 문턱에 선 남편 때문에 어머니 조한숙 씨는 둘째 아들의 뜻을 물리칠 수 없었다.

“남편을 살리겠다고 자식 몸에 손을 댔지만 수술실에서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행히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회복실에서 자신의 간의 일부를 떼주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아들과 마주하자 고마움과 미안함에 김 사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랑 나랑 이제 똑같은 훈장을 단 거예요. 누구 훈장이 더 멋진지 나중에 대볼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자, 옆에 있던 어머니는 이런 부자의 환한 표정에 더없이 기쁘면서도 9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 걱정으로 또 가슴이 아렸다. 아픈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들은 한 달 동안 성금 운동을 전개해 모금한 850만원을 김 사장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충북도회 이철기 회장은 “김 사장 부자 간의 애틋한 사랑에 감동을 받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다”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빨리 건강을 되찾아 사업일선에서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뜻에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김 사장 부자의 미담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철기 회장은 “경기침체와 설비건설업시장의 일감 부족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와준 회원사의 크나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회원사간의 협력과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피력하였다.

김 사장은 “가족의 사랑과 사회 구성원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위해 살아가면서 갚아 나가겠다”면서 “설비협회 회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ROTC 동기생들과 전 직장이던 중앙투자신탁 사원들이 모금활동을 전개, 김 사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등 각계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